

대구 주보

연중 제6주일 2017. 2. 12.(가해) 제2038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
해하여라” 싸움의 불씨는 미약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씨가 커가기 전에 용기를 내어 용서와
화해를 할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귀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집회 15,15-20

제2독서 1코린 2,6-10

복 음 마태 5,17-37.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김충귀 베드로 신부 | 약목본당 주임



마지막으로 예비자 교리를 총정리하는 시간에 고해성사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리를 듣고 있던 예비자가 손을 들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것을 다 지키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신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예비자는 세례를 잘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종종 자기 안에 자리하는 편견을 인정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자신감으로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했고, 그 후엔 후회를 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의로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자비와 용서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과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시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해야 함을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의로움은 자비와 용서보다는 그릇된 자신감과 우월감을 통해 그릇된 판단과 말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 자비와 용서를 믿기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 주신 자비와 용서를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미사에 나오는 화답송의 시편 말씀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다가오는 한 주의 삶들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또 그 축복을 전하시는 삶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물고기더러 나무에 올라가라?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의 인원은 대략 6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700만 명에 달했는데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귀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오늘의 교육 현장은 늘 그대로인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4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학령기 인원의 4~5%에 해당하는 28만 명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거의 반 가까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부적응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학교는 늘 그렇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위 그룹의 10%는 건재해 있으며, 그 10%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10%도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80%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로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시공부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교육은 그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보고서』라는 책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21세기의 24시간 유연한 작업체제보다는 사라져가는 산업체제의 시스템에 알맞도록 짜여진 어긋난 교육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는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고기더러 나무에 올라가라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대 학교제도를 재판합니다.’라는 유튜브 영상에 실린 내용입니다. 만일 원숭이와 까마귀, 펭귄, 코끼리, 물개, 강아지를 두고 똑같이 나무에 올라가는 과제를 준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오늘날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두고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은 100년 전의 전화기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오늘의 자동차는 100년 전의 우마차와 큰 변화를 보이는데, 왜 유독 교실의 풍경만큼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학교의 강제적 교과와 시수가 학교의 모든 배움을 규정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와 시대적 여건에 따른 요구를 무시하는 교육제도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당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현실 또한 아이들의 탓, 혹은 부모들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문**

<https://m.youtube.com/watch?v=515TnRSD4DI&feature=share>



♪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 ♪

이승연 소화데레사 수녀 | 남산본당 성모유치원장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은 저는 매일 성당에 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수녀원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수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집, 직장과 성당을 오가며 저는 예수님께 폭 빠져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느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게는 너무 기쁜 일이었고 하느님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성모의 기사회, 포콜라레, 레지오, 성가대 등 교회 활동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기쁨을 느끼며 좋으신 하느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덕성당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할 때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성심시녀회의 성소자 모임을 다녔습니다. 수녀원 거실 벽에 있던 “주님 손 안의 연장”이란 글귀는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녀 소화데레사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예수성심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김으로써 예수성심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수도회의 목적과 사명, 정신과 영성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신 그분 손안의 꼭 필요한 연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성녀 소화데레사 축일에 입회를 하게 되었고, 가슴 설레고 눈물 나는 자청원기, 수련기를 지내고 첫서원과 유기사서원을 거쳐 종신서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삶의 매 순간마다 저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안배하심과 섭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부지 같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 많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 당신 아드님의 정배로 축성되었으니 이것은 저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분께서 마치시길 기도하며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오늘 저를 새롭게 봉헌합니다. 아멘.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예레 15,16)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마침내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칭호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알아봅니다.

예수 :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해 준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마태 1,21) 분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그리스도 : ‘그리스도’는 히브리말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사도 10,38)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닌 고귀한 소명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아들 :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느님과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계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요한 13,13) 또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될 때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아들 :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참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임을 드러내십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시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느님께도 해당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 1,14) **▶▶▶**



“모든 교구민들이 우리나라와 교구를 위하여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를 권유합니다.”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교구장 동정



2. 11(토) _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기념미사 및 범어대성당
야외 성모상 축복식(11시, 범어대성당)

보좌주교 동정



2. 6(월)~2. 8(수) _ 일본 오사카교구
다카야마 우콘 시복미사 참석

교구 및 기관 행사

- 2. 13(월)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연수(10시, 교육원 나동 4층 회의실)
YHY해외봉사활동(2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일대)
- 2. 14(화) _ 시니어평생대학 담당수녀 회의(14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 15(수) _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1차-주간반(18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 2. 16(목) _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cum개관식(14시) /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봉사자 피정(17일까지,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 제187차 창세기 연수(19일까지, 연화리피정의집)
- 2. 17(금) _ 제9차 비다누에바 연수(19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 2. 18(토) _ 성골롬반회 사제서품식(11시, 계산성당) /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1차 수료미사(11시, 교육원 다동)

2017 신년누가이어리

판매가: 12,000원 /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성바오로딸 범어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쿨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월성성당 성물방, 범어대성당 성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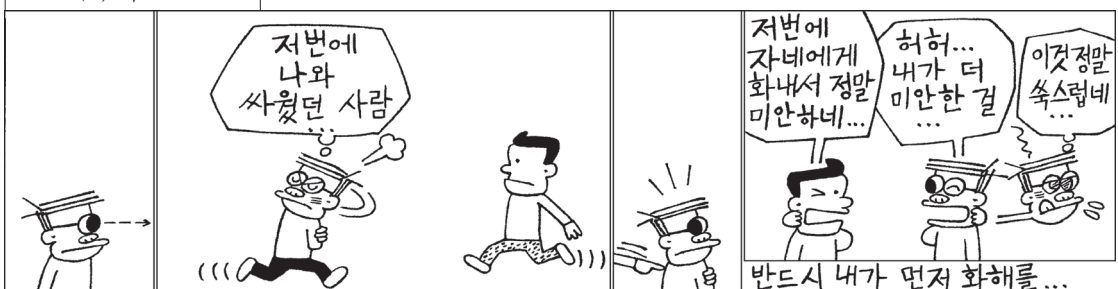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비판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0:30 범여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8일(토) 11:00 성모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수) 14:00~16:00
저녁반: (수) 19:30~21:30
마감: 3.8(수)
수강료: 1학기당 6만원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가나 피정 개설

기간: 3.25(토)~26(일)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참가비: 부부당 4만원
(1인 2만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토비트 피정

기간: 3.22(수)~24(금) 2박 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선착순 60명)
대상: 본당 65세 이상 노인
마감: 3.12(일) / 피정비: 12만원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2박 3일 젊은이 빈마음 피정

기간: 2.24(금)~26(일) / 선착순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주최: 수원 성빈센트대블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베네딕도영성관 구역성경 통독 피정

기간: 3.9(목) 9:30~12(일) 15:0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피정비: 16만원
문의: 베네딕도영성관, 313-3425

교육 | 모집 | 기타

성경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룩한 독서 모임

마감: 2.19(일) / 대상: 전신자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장소: 어버이성경학교 내 별관(경산)
주최: 포교베네딕도수녀회 / 선착순
문의: 815-1114 / (010)2512-4627

영상과 함께하는 성경공부(쇼바이블)

일시: 3.4(토) 15:00~17:00(전체 5회)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주제: 예수 그리스도편
대상: 청년 / 회비: 1만원
문의: 김스페란자 수녀, (010)2503-5185

말씀으로 마음 치유(독서치료)

일자: 3월부터 10주간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30~50대 남녀 / 참가비: 12만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모집

기간: 2차_2.25(토) / 3차_3.25(토)
국가: 캐나다, 필리핀(8주 이상)
대상: 성인 및 대학생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3.20(월) 성모님 발현지
경비: 368만원(12박 13일)
일자: 3.28(화) 이스라엘, 이탈리아
경비: 430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 · 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SINCE 33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SM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행사 중!
공장직영, 황토소파
☎ 1588-5335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민) 053)857-2037
www.spcfood.co.kr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icomious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세요!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주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

행사 | 모임

2017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5(일)~19(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 일반 / 등록비: 2만원(1년)

문의: 본당 사무실 /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며, 입시반(고3·대학·일반)은 3월부터 1년간 결석 없이 출석해야만 2018학년도 대신학교 지원 가능. 등록한 예비신학생은 입학미사에 참석
입학미사: 3.19(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동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3.10(금)~12(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 19세~40세 청년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 기도회

신청: cafe.daum.net/youngbless

문의: 정유진, (010)8939-5775

교육 | 모집

2월 가나 강좌

일시: 2.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2017 소람상담소 상담사목교육 상반기 모집

내용: 기초(신앙과 심리학, 인간발달) 및 심화(심리상담이론, 이상심리학)

신청비: 과목당 5만원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2.12(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49차 ME주말: 2.24(금) 19:00~26(일)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한중친선교류 평신도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노래,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여행, 교류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2662-156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주부, 직장인반)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새빛학교 국어·영어기초반 신입생 모집

국어 개강: 3.6(월)

영어 개강: 3.9(목)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2017 대가대평생교육원 1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학 개설(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개강: 3.2(목)

마감: 2.28(화) / 신청: 660-5554~7

2017 가톨릭고려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28(화)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교구 사목연구소 직원 채용

자격: 대졸, 사목연구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성적·경력증명서 / 마감: 2.16(목)

제출: 교구청 본관 관리과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0

각산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 엑셀업무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문의: 각산성당, (010)4820-3142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관리자 채용

근무기간: 매년 3월 중순~11월 중순

자격: 숙소관리, PC가능,

운전가능자 부부

문의: 천부성당, (054)791-604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가톨릭 임마누엘

결혼정보 43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산나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승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니엘)/청농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